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계리 전문가 단체”

 한국보험계리사회	보 도 자 료			
	보 도	배포 후 즉시	배 포	2020. 3. 5.

책임자	서영일 사무국장(02-782-7440, seoil01@actuary.or.kr)	총 3면
담당자	윤강현 선임(02-782-7440, kh.yoon@actuary.or.kr)	

제목: [사]한국보험계리사회 뉴스레터 100호 특집호 발간

- ◇ 뉴스레터(IAK Neswletter) 100호를 맞이하여 특집호로 발간되었습니다.
- 2012년 10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통권 100호 발간
 - 전문 기고, 계리 업계 동향, 이슈 및 회원동정 등의 소식 전달
 - 100호를 기점으로 계리사회의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 전달 예정

I 뉴스레터 100호 특집호 발간

□ (뉴스레터 발간 배경)

- 2012년, 국내외 계리분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뉴스레터 제1호 발간을 시작하였다.
- 8년 동안 매월 본회 회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이메일,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배포 되고 있으며,
- 계리동향(오피니언, IFRS17, 국제동향, 논문발표), 계리사회 활동(세미나,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 회원동정(경조사, 서적발간, 구독이벤트) 등의 내용 들을 전달하고 있다.

□ (100호 특집호 구성)

- 2021년 3월, 본회는 뉴스레터 통권 100호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 업계 주요 인사들은 특집호를 계기로 발간 축하인사 및 보험계리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뜻을 밝혔다.

▲(발간사) 이재민 회장 ▲(축사) 금융감독원 박상욱 부원장보, 한화생명 여승주 사장 ▲(학계 격려사) 한국보험학회 장동한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성주호 회장, 계리학연구위원회 이항석 위원장

- 금융감독원 박상욱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에게는 영업조직의 크기 등이 아닌,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보험산업에서 계리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IFRS17의 도입은 단순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를 뛰어 넘어 보험 산업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보험업계의 커다란 변화인 IFRS17 도입과 이에 따른 계리사의 업무 변화 과정을 주제로 한 임창원 고문의 특별기고는 보험전문가로서 계리사가 갖춰야 할 프로페셔널리즘과 윤리의식,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특별기고1) 본회 임창원 특별고문의 ‘IFRS17도입과 보험회사 계리업무의 변화’ ▲(특별기고2) 보험연구원 김세중 실장의 ‘보험산업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이슈’

- 또한, 특집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1년여간 ▲(연재) 금융감독원 김호균 전문감독관의 ‘보험계리史(History of Actuaries)’ -보험계리사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나볼 수 있다.

- 이외에도 그동안의 100호까지 오기까지의 오피니언 기고자 소개, 계리사회의 이달의 소식, 위원회 회의 내용, 국제동향, 편집인 소감 그리고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II 앞으로의 뉴스레터

- 뉴스레터 100호를 기점으로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 자료, 계리 실무, 본회 위원회 활동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 회원 피드백에 따라 IFRS17 관련 다양한 이슈와 업계의견, 국내외 신규상품 정보공유, 계리사 윤리 등의 콘텐츠도 포함할 계획

[참고 : 뉴스레터 100호]



본회 뉴스레터 100호 특집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actuary.or.kr/Notification/newsletter.asp>)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계리업무의 변화

2021년 3월

임차원

한국보험계리사회 특별고문, 보험회계위원회 위원장

1. 배경

(IFRS17 기준서 및 도입 일정의 확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6월에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은 2023년부터 IFRS17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최초로 작성되는 IFRS17 재무제표에는 2021년말의 대차대조표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IFRS17의 도입을 준비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IASB가 2017년 5월에 발행한 “IFRS17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IFRS17의 도입은 국내외적으로 보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 재무보고를 통해 보험상품의 수익성과 복잡성에 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설계와 가격결정의 절차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또한 유럽의 Solvency II 도입 사례와 같이 IFRS17과 유사한 구조와 특성을 가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국내 보험회사의 상품전략과 위험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계리사 역할의 중요성)

IASB는 또한 “IFRS17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의 IFRS17 도입과 도입후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IFRS17 재무보고에 계리기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a)확률가중 현금흐름의 추정, (b)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의 결정, (c)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위험조정의 결정 등을 위한 적합한 계리기법의 적용은 계리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현재 IFRS4 재무보고에 비해, IFRS17 재무보고에 요구되는 계리기법의 복잡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IFRS17 재무보고절차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고, 각 단계에서 계리작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리사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계리사회(IAA)와 유럽계리사회(AAE)가 IFRS17 재무보고의 품질확보를 위한 보고계리사(Reporting Actuary) 제도의 도입을 보험업계에 권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IASB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개발 및 위험관리에도 IFRS17 재무보고에 적용되는 계리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품개발 및 위험관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계리사가 IFRS17 계리기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보험회사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유럽에서 Solvency II 감독체계 하에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K-ICS가 도입되는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이다.

(IFRS17 관련 계리서비스)

IAA는 IFRS17 재무보고에 관련된 계리서비스를 (a)방법론과 가정 자료의 선택에 관한 자문, (b)이동분석(Movement Analysis)의 수행 및 변동요인의 설명, (c)계산작업 및 민감도분석의 수행, (d)계산결과 및 근거 자료의 검증 등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회사의 IFRS17 재무제표 준비와 외부감사인의 IFRS17 재무제표 감사에서 계리업무의 수행방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IFRS4 재무보고와 비교해서 IFRS17 관련 계리업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복잡하고 새로운 계리기법의 활용이 요구되는 계리업무가 많아지고, (b)재무제표 숫자를 확정할 때까지의 과정에 투입되는 입력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며, (c)현저하게 증가한 계리시스템을 활용한 계산작업의 양이 현저히 증가해서 작업결과의 정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의 효과적인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K-ICS의 도입)

금융감독원은 IFRS17의 도입 일정에 맞추어, IAIS가 다국적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와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의 내용을 일관성있게 반영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K-ICS의 도입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주요 골자는 시장가격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한 자산 및 부채의 측정과, Shock 방식을 적용한 요구자본의 산출방식으로 설명되고, 그 특성이 IFRS17의 자산 및 부채의 측정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보험계약부채와 요구자본의 측정을 위한 몇가지 요소에서는 IFRS17과 K-ICS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a)계약의 경계, (b)할인율곡선, (c)위험마진 등이 제시된다. 또한, Shock 방식 요구자본의 산출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계리작업의 양이 작지 않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IFRS17과 K-ICS의 성공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리작업 전문인력과 계리시스템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요소이다.

2. IFRS17의 주요 특성

(부채측정방법의 복잡성과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들이 회계기준이 제시하는 원칙을 충족시키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각자 다르게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부채의 측정을 위해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이 매우 많고, 여기에는 (a)보험계약의 통합수준, (b)보험계약의 경계, (c)측정방법의 선택(GMA, PAA, VFA), (d)계리적가정의 선택, (e)할인율곡선의 선

택, (f)위험조정 방법론과 신뢰수준의 결정, (g)전환방법의 선택(FRA, MRA, FVA), (h)공정가치법(FVA)의 방법론 및 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회사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위의 (a)-(h)의 단계에서 전문가적 판단이 다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에 선택한 방법론과 가정의 정합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a)-(h)의 각 단계에서 선택한 방법론에 따른 계리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리기법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고, 국제적으로도 그 실무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방법론의 복잡성은 계리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게 설계된 국내 보험업계의 보험상품의 측정에 IFRS17이 요구하는 복잡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는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IFRS17 관련 계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계리사들에게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회사와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행현금흐름의 추정과 위험조정의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계리기법에 관한 지식과 계리시스템의 활용경험의 축적을 조기에 완료할 것을 계리사들에게 요구한다.

(할인율곡선의 중요성)

IFRS17 보험계약부채의 측정은 보험계약으로부터의 예상현금흐름을 시장가격과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곡선을 적용하여 할인함으로써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계리작업을 포함한다. 현재의 IFRS4에서는 보험계약부채의 측정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결정한 단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관행은 IFRS17의 할인율곡선을 적용하는 관행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특성과 비유동성특성을 반영한 할인율곡선을 동일한 특성을 지닌 자산의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IFRS17의 기준은 보험업계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할인율곡선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선택에 있어서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위한 국제적인 실무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해당 변수의 구조와 수준에 관한 연구 자체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a)공극이자율의 수준 및 수렴 방

식, (b)비유동성 프리미엄의 수준과 기간구조, (c)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비유동성 프리미엄 수준, (d)이자율의 시장가격이 관찰되는 관찰 시점과 보간법의 선택 등이 포함된다.

할인율곡선의 수준과 기간구조가 보험계약부채의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인율곡선이 높아지면 보험계약부채가 감소하고, 할인율곡선이 낮아지면 보험계약부채가 증가한다. 할인율곡선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할인율곡선이 높아지면 보험계약부채와 함께 보유채권의 자산가치도 함께 감소한다. 그러나 보유채권과 보험계약부채의 듀레이션이 다르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폭이 달라져 순자산가치의 금리민감도가 커지는 위험이 생긴다. 또한 특정 만기에 대한 보유채권의 시장수익율과 보험계약부채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곡선의 해당 만기 수익률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이 증가한다.

할인율곡선의 변동성은 보험회사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한 궁극할인율의 변동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에 비해 단기할인율은 수시로 폭넓게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인율의 변동성은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감소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물량은 단기채권이 압도적으로 많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거래물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보험계약의 예상현금흐름에서 특정 시점의 현금유출금액에 비해 해당 만기의 보유채권의 액면금액이 크게 모자라면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폭되고,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험계약부채의 규모에 비해 장기채권의 거래물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국내 금융시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국내 보험회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손익계산서 구조와 손익패턴의 변화)

IFRS17의 도입으로 크게 변경된 것중의 하나는 손익계산의 표시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IFRS4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손익을 “수입보험료+투자수입-실제사업비-지급보험금-투자비용-책임준비금전입액”의 형태로 표시하지만, IFRS17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손익을 “보험계약마진상각+위험조정상각+예상사업비+예상보험금-실제사업비-실제보험금+투자영업수입-투자영업비용”의 형태로 표시한다. 손익계산서의 대부분의 주요 항목의 값이 복잡한 계리기법을 적용한 계리작업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은 보험회사의

IFRS17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과 작업절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현행 IFRS4 회계기준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의 패턴이 상품의 유형과 채널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특히 초기 7년동안에 매우 불규칙적인 모양을 보여준다. 이는 감독목적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IFRS17에서는 초년도를 제외한 보험기간의 당기손익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실현된다. 이 것은 보험계약의 수익성과 위험조정을 가입시점에서 결정하고, 향후 보험기간에 걸쳐 일정한 패턴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IFRS17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부채의 측정에 적용하는 계리적가정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그 변경의 효과로 장래손실이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으로 판정되면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모두 일시에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보험상품의 설계와 가격책정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을 때, 특히 보험상품의 수익성분석에 적용한 방법론과 가정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큰 악영향을 끼칠 위험의 존재를 의미한다.

3. 보험회사 계리업무의 변화

(계리사 역할의 변화)

계리사는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품개발 및 부채평가, 그리고 계약자배당은 여전히 계리사의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위험관리체계에서의 계리사 역할도 국내외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공정가치에 기반을 둔 위험관리체계로 진화하면서 그러한 형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계리업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임계리사에게 소정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찰된다.

IFRS17 도입 이후에 보험회사 경영활동에서의 계리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해당 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상품개발, 계

리결산, 위험관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계리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지표를 확인해야 하며, 세가지 다른 영역에서의 계리기법에 적용되는 중요한 입력정보와 방법론의 선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산계리사)

보험회사에서 결산계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결산시점에서의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는 업무는 현재와 다르지 않지만, IAA가 제시한 4가지의 IFRS17 관련 계리업무를 주어진 시간이내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외부감사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업무는 기본이고, 보험회사가 경영관리를 위해 선택한 다양한 재무지표를 주기적으로 적시에 평가하는 업무도 매우 중요하며, 신계약가치 및 내재가치의 평가업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IFRS17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계리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한다. (a)IFRS17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b)감독회계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c)K-ICS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및 요구자본의 산출, (d)신계약가치 등 재무성과관리지표의 주기적인 평가, (e)주기적인 경험율분석과 가정관리위원회 의사소통. (f)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g)배당계약의 손익 및 계약자배당금 할당, (h)법인세법 및 교육세법 책임준비금 산출 업무.

IFRS17이 도입되면 결산계리사가 (a)-(f)까지의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계리역량의 수준도 현저히 높아진다. 특히, (a)확률가중 현금흐름의 추정, (b)현금흐름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의 결정, (c)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위험조정의 결정 등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계리기법을 이해하고 관련 계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계리결산부서의 계리역량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결산계리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외부감사를 위한 결산 재무제표가 제때에 준비되지 못하거나, 외부감사인에게 제출된 이후에 계속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또는 외부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FRS17 결산 오류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주주 및 감독당국 등의 핵심 이해관계자들로 부

터의 신뢰가 크게 추락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결산계리사의 책임이다.

(상품계리사)

상품계리사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특히 보험상품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품의 설계 및 상품가격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상품의 수익성 평가는 회사의 정책 및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리기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보험상품에 최저보증이나 옵션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익성평가에 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확률론적 모형 등의 다양한 계리기법이 활용된다.

상품의 수익성분석은 전체 보험기간을 통해 실현되는 경제적손익은 물론, 현재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추정된 연도별 예상 당기손익과 현재의 지급여력제도를 반영하여 추정된 연도별 예상 가치분손익의 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한 다양한 수익성지표에 의존한다. 대표적인 수익성지표에는 신계약가치(VoNB), 신계약마진율(VoNB Margin),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손익분기점(Breakeven Year) 등이 있다.

IFRS17의 도입에 따라 상품계리사는 수익성분석을 위한 계리업무와 수익성지표의 선택에 있어서 IFRS17와 K-ICS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상품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수많은 단계에서 내려지는 계리적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결산계리사, 위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된다.

IFRS17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수익성분석을 위한 계리시스템의 구축과 수익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들의 계리업무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IFRS4 및 RBC제도에 기반한 상품수익성분석은 IFRS17과 K-ICS를 적용한 수익성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서 새로운 상품의 판매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익성분석 역량의 부족으로 새로운 상품의 판매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은 보험회사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험으로 간주될 것이다.

상품계리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새로운 상품을 적시에 출시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의 성장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판매실적을 기록한 새로운 보험상품의 가격 결정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험회사의 당기 재무성과에 재무상태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현재의 IFRS4 회계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예컨대 보험계약마진이 매우 낮은 보험상품을 출시한 후에 해당 상품의 해지율, 위험율, 또는 사업비가 원래의 계리적가정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계리적가정의 조정이 불가피해지면 보험계약부채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당기의 당기손익과 지급여력비율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위험계리사)

위험계리사는 회사의 위험관리체계에서 위험관리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리업무를 수행한다. 위험계리사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용자본의 산출을 위한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와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계리작업이 포함된다. 또한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ORSA(Own Risk Self Assessment)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회사의 위험관리체계에서 주요 경영활동이 계리적가정과 계리작업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위험계리사가 수행하는 위험관리활동은 보통 법정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요구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요구자본 대신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관리체계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요구자본의 산출 및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에 관한 위험계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IFRS17과 K-ICS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위험계리사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의 책임준비금 및 요구자본의 산출방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관리의 중요한 요소인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전략 또는 전략적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험계리사의 참여 정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현재의 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보험계약부채와 시장이자율의 관계가 단절되어있기 때문이다.

IFRS17과 K-ICS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체계에서 계리기법을 활용하는 위험관리의 분야가 확대되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널리 관찰되고 있다.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및 요구자본의 산출에 복잡한 계리기법의 적용이 요구되므로, 보험회사가 최적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계리기법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위험계리사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다.

위험계리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보험회사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에 계리기법 활용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상품전략과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IFRS17과 K-ICS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계리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상품계리사와 결산계리사를 포함한 회사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계리기법을 적용한 위험관리를 위한 일차방어선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임계리사)

선임계리사는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중요한 계리업무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리작업 결과의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을 회사의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에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임계리사가 관여하는 주요 계리업무에는 (a) 상품의 수익성분석 및 준법성, (b) 보험계약 부채의 측정, (c) 배당계약의 손익과 계약자배당금의 결정, (d) 지급여력비율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평가 등이 포함된다. 주로 이차방어선(2nd-Line of Defence)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차방어선(1st-Line of Defence)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IFRS17의 도입되면서 선임계리사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험상품의 수익성, 보험계약부채의 측정, 배당계약의 손익의 결정,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등의 계리업무가 IFRS17의 도입에 따른 업무수행 방법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업무수행 방법이 함께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선임계리사의 검증을 통한 보험회사의 계리작업 결과의 신뢰성 확보는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보험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IFRS17 관련 계리작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선임계리사의 조언은 보험회사의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감독당국의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결론(우리의 과제)

(계리업무 품질 확보의 중요성)

IFRS17의 도입에 따라 계리업무의 결과가 보험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는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관련 계리업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현저하게 증가해서, (a)계리시스템과 결산프로세스의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계리업무의 품질이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과, (b)경영활동의 결과가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IFRS17의 특성 때문에 계리업무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악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보험회사의 핵심 위험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계리기준의 이해와 준수)

IFRS17은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AA(국제계리사회)와의 협력을 거쳐 제정된 국제회계 기준이다. IFRS17 재무보고를 준비하는 많은 절차에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계리 기법의 적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리사가 수행하는 관련 계리업무의 품질이 IFRS17 재무보고의 품질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IAA는 IFRS17 재무보고에 참여하는 계리사가 관련 계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리전문가로서 준수해야 하는 ISAP(국제계리기준)을 2019년 말에 제정한 바 있다.

IAA(국제계리사회)는 2020년 9월에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IFRS17 재무보고의 품질제고를 위해서 관련 IFRS17 재무제표를 준비하거나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가 IAA의 국제계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AAE(유럽계리사회)도 2020년 11월에 토론회(Discussion Paper)의 발표를 통해, 유럽에서 Solvency II 제도에서의 선임계리사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서, IFRS17 재무보고를 담당하는 보고계리사가 계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관련 계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았을 때, 계리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계리기준을 준수하여 준비한 IFRS17 재무보고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보험업계의 성공적인 IFRS17의 도입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롭게 요구되는 계리역량의 확보)

IFRS17 계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리시스템과 계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충분한 규모의 계리인력을 갖추는 것은 IFRS17 재무보고의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를 합쳐서 보험회사의 IFRS17 재무보고를 위한 계리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계리사가 IFRS17 관련 계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IFRS17 재무보고의 품질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IAA와 AAE는 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IFRS17 재무보고 관련 계리업무를 수행할 때의 ISAP(국제계리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 자격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AA는 IFRS17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3권의 전문서적(Monograph)과 국제계리노트(IAN100)를 소개하고 있다.

IAA가 발행한 전문서적은 (a)IFRS17 위험조정(Risk Adjustment), (b)할인율(Discount Rates), (c)확률론적 모델링(Stochastic Modeling)의 3권으로, 모두 IFRS17 계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리기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숙독해야 할 필독서이다.

또한 IAA가 2020년 말에 발행한 국제계리노트(IAN 100)는 IFRS17 기준서의 내용을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의 관점에서 질의 응답 방식으로 기술된 실무교육자료이다. 280페이지의 이 교육자료는 IFRS17 계리업무를 5개의 섹션, 18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계리업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해당 분야의 계리전문가들이 함께 수년에 걸쳐 저술한 가장 권위있는 IFRS17 계리업무 교육교재이다.

(계리사회의 역할과 우리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IFRS17의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서 (a)결산계리사, (b)상품계리사, (c)위험계리사, (d)선임계리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따라서 계리업무 수행결과의 품질에 대한 경영진, 외부감사인, 감독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심은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다양한 계리업무에 필요한 계리기법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a)계리사가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계리기준을 준수하고, (b)관련 계리업무를 수행하는 계리사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IFRS17 계리업무의 품질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게 강조되고 있다.

IFRS17의 도입에 따라 (a)결산계리사는 물론 (b)상품계리사와 (c)위험계리사, 그리고 (d)선임계리사의 업무에도 계리업무의 수행방법과 요구되는 계리역량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험회사 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계리사들이 IFRS17 환경하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보험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계리사가 IFRS17의 본질을 이해하고 필요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IAA가 제정한 국제계리기준을 도입하고 IAA가 발간한 3권의 전문서적과 국제계리노트(IAN 100)을 번역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국제계리기준의 준수와 IFRS17 계리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원 전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IFRS17의 도입이 보험계리사가 국내 보험업계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진짜 보험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